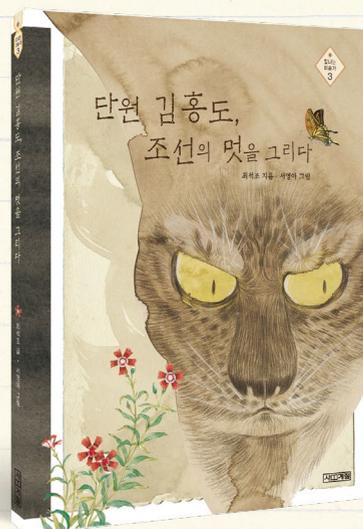


단원 김홍도, 조선의 멋을 그리다



최석조 글 | 서영아 그림 | 160쪽

〈김 화원의 비밀을 찾아라〉
초등학교 3학년 미술 교과서 4단원 14쪽



‘김홍도’ 하면 ‘풍속화’부터 떠올린다. 우리는 초등학교 내내 여러 교과서에서 그의 풍속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의 풍속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그의 풍속화가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까닭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조선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을 남긴 ‘기록의 나라’이지만 그 어떤 기록도 김홍도의 풍속화에 견줄 수 없다. 기록이 아무리 자세하다 하더라도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을 김홍도의 그림만큼 낱낱이 보여 주지는 못한다. 기록에 견주어 풍속화는 조선 민중들의 문화, 먹을거리, 옷, 생활, 놀이를 마치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보여 준다. 그래서 풍속화가 중요한 것이다.

(학습 목표)

김홍도는 그만의 방식으로 풍속화를 그렸다. 하지만 그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초충화 같은 장르에서도 여느 화가와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 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김홍도의 풍속화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길쌈타작대장간고기잡이 같은 노동, 씨름무동웃놀이 같은 놀이, 빨래터우물가점심 같은 서민들의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진감 넘치는 구성과 예리한 관찰,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화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건강한 웃음과 정감이 묻어난다.

- ◎ 풍속화는 어떤 그림이고, 조선 시대 화가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 ◎ 김홍도와 그의 스승 강세황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 ◎ 조선 시대는 신분에 따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다. 조선 시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에 대해 알아보자.
- ◎ 조선 시대 문화부 도화서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일하는 화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뽑는지 알아보자.
- ◎ 김홍도의 그림에는 ‘여백’이 있다. 여백은 우리 옛 그림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여백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독전 활동)



김홍도의 <씨름> 공부하기

→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김홍도의 <씨름> 이미지와 현대의 씨름 경기 가운데 들배지기 장면(사진·동영상)을 미리 준비한다.

→ 먼저 들배지기 장면 사진과 동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 이때 아이들에게 이 장면이 씨름 기술 가운데 ‘들배지기’ 장면이라고 말해 주고, 씨름을 할 때 필요한 살바와 옷차림, 동작을 잘 살펴보라고 한다. 들배지기는 상대방의 살바를 잡고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자기 몸을 살짝 돌리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또 기운 센 장사가 상대를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그대로 냅다 꽂는 기술을 말하기도 하다.

→ 김홍도의 <씨름>을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 이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 주고 낱낱이 물어본다. ①옛 그림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사선을 그리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 준다. ②씨름하는 사람 가운데 아래 사람이 들배지기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일러 준다. ③씨름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를 자세히 살펴보라 하고, 현대의 씨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본다. ④누가 이길 것인가 물어본다. 이때 선생님은 두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 보여 준다. ⑤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 같냐고 물어본다. (오른쪽 아래 두 사람이 뒤로 손을 짚으며 몸을 빼고 있다. 두 사람은 자기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몸을 뒤로 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왼쪽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을 반대로 그려 놓았다. 이것을 알려면 아이들에게 이 사람처럼 한번 몸짓을 해 보라 하면 된다.) ⑥김홍도는 이 판이 끝나면 다음에 할 사람도 그려 놓았다. (왼쪽 위를 보면 것과 신발을 벗어 놓고 구경하는 사람 둘이 있다. 이 두 사람이 다음에 씨름할 사



《단원풍속도첩》 중 <씨름>, 18세기 후반

람들이다.) ⑦계절을 알려 주는 것도 있다. 아이들은 바로 찾을 것이다. 바로 부채다. 이 씨름은 단옷날(음력 5월 5일) 씨름판이다. 이 부채는 단오부채다. ⑧옛장수 소년의 얼굴을 확대해 보여 준다. 이 소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추리해 보라 한다.

(독후 활동)

김홍도의 <무동> 그리기

-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김홍도의 <무동> 이미지 파일을 준비한다.
- 네이버에서 '대금 구조'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고, 취구와 청공, 청공이 하는 구실을 미리 공부해 둔다.
- 아이들에게 <무동> 그림을 보여 준다.
- 먼저 화가 김홍도가 이 장면을 어디쯤에서 보고 그렸는지 물어본다. (힌트는 장구 모습이 다. 오른쪽 북판과 변죽을 보이게 그린 것으로 보아 김홍도는 오른쪽 아래에서 이 장면을 보고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른쪽 위 첫 번째 연주자는 세피리를 불고 있다. 불이 아주 빵빵하다.
- 김홍도가 잘못 그린 곳은 두 군데다. 하나는 오른쪽 가장 아래 해금 연주자의 왼손이다. 이것은 해금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쥐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 또 하나 잘못 그린 것은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대금 연주자이다. 김홍도는 대금 연주자가 청공에 입을 대고 연주하는 것처럼 그렸다. 하지만 대금은 취구에 입을 대고 불어야 한다.
- 여기서 아이들이 그려야 할 것은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무동'이다. 먼저 2B 연필로 윤곽선을 그리게 한다. 종이는 B5 용지이면 좋고, 그리기에 앞서 그릴 자리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이 좋다. 왼쪽 아래나 오른쪽 아래가 좋다. 발놀림과 팔놀림의 특징을 잘 붙잡아 그리



《단원풍속도첩》 중 <씨름>, 18세기 후반

게 하자. 다 그린 다음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이때 화려한 색을 칠해도 된다. 머리는 무동 둘레에 '바람' 효과를 내게 하자. 연필이나 가는 붓으로 얇게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면 된다.